

# 사회적금융의 상상

정종덕

## 목차

사회적금융의 상상 ① 도시재생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애틀랜타와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04
사회적금융의 상상 ②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솜 모빌리티(Som Mobilitat)'와 참여형 금융	08
사회적금융의 상상 ③ 기후위기와 제로 에너지 주택 프로젝트 '에너지스프롱(Energiesprong)'	14
사회적금융의 상상 ④ 공동체주식을 통해 지켜가는 지역사회 문화 허브, '익스체인지 브리스톨(Exchange Bristol)'	19
사회적금융의 상상 ⑤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Cooperativa Fonderia Dante)과 협동금융	27
사회적금융의 상상 ⑥ 프레스턴시(Preston City)의 회생과 선순환 금융	34
에필로그	42
참고자료	43

# 사회적금융의 상상

---

정종덕(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SVS 인사이트 5호를 통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6대 중점 분야 (▲도시재생, ▲기술, ▲에너지·환경, ▲문화·예술, ▲양극화, ▲인구)의 최신 해외 사례와 이를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다양한 사회적금융 모델을 소개한다. SVS 인사이트 5호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라이프인'에 매월 '사회적금융의 상상'을 주제로 연재한 6개의 기사에 각주를 더하고 일부 편집하여 작성되었다.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①

# 도시재생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애틀랜타와 ‘EIB(Environmental Impact Bond)’

도시는 산업구조, 인구 증·감 등의 변화에 따라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또 쇠락하기도 한다. 쇠락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재개발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도시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리는 소프트웨어적인 재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01</sup> 한국은 급격한 고도성장 당시 이 두 가지의 축 중 하드웨어에 치중했고, 이는 획일적인 도시개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되려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최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위주의 정비에서 탈피해 지역의 역사성, 원주민의 지역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고 복원하며 단순 건축물이 아닌 좀 더 포괄적으로 ‘공간’을 재생하고 있다. 협동조합주의 가치에 기반한 시민자산화, 사회주택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도시재생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또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재생은 하드웨어 일변도(재건축)의 정비방식에 소프트웨어(커뮤니티와 역사)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재생의 새로운 과제는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는 그 실마리를 생태,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과 저개발국, 대도시와 지방 가릴 것 없이 우리는 도시의 기능과 사회 관계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것을 경험했다. 문제는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진, 홍수,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는 좀 더 빈번하게 찾아올 것이고, 이는 도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일 먼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가올 도전에 얼마나 탄력적인(resilient)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인프라의 정비, 커뮤니티 즉 사람의 관계성과 지역성의 회복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도울지, 무엇보다 사회적금융은 이 새로운 전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19년 미국 애틀랜타시에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애틀랜타시가 록펠러 재단의 후원을 받는 Quantified Ventures와 함께 거래가 가능한 지방정부 채권형태로 한화 약 170억 원(1,400만 달러) 규모의 환경성과연계채권(EIB, Environmental Impact Bond)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이다.<sup>02</sup>

01 박강아 (2012) 'SERI 경영노트 - 부활하는 도시의 비결, 도시재생'

02 City of Atlanta (2019) 'City of Atlanta Department of Watershed Management Announces First Publicly-Issued Environmental Impact Bond'



## 애틀랜타 시내 빌딩의 관개시설

© American Flood Coalition

애틀랜타시는 급격한 도시화를 따라가지 못한 낙후된 관개시설로 여러 지역이 상습적으로 범람이 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는 특히 Proctor Creek과 같은 낙후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애틀랜타는 시의 고질적인 홍수, 하수의 범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 6개의 그린 인프라 확충(배수시설이 취약해 범람이 되는 낙후 지역의 하천, 습지대 복원 등)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 계획했다.<sup>03</sup>

애틀랜타의 6개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약 6.5백만 갤런의 물을 범람시키지 않고 막는다면, 프로젝트에 투자한 시민과 민간 투자자들은 약 3.55%의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sup>04</sup> 애틀랜타시는 EIB를 통한 재원 조달로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 중심 평가에 따른 효율성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한편 시민들은 스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구조이다. 시민의 참여를 높인다면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소모성 지출이 아닌 시민에게 돌아가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이 성과에 비례한 투자수익률을 제공해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의 자금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로 용도를 지정한 지역화폐 지급 등 코로나19의 경제침체로 인한 초저금리시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요즘 EIB를 통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

애틀랜타시는 범람지역 주민들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취약계층인 점에 착안, 그린 인프라를 통한 시민자산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다. EIB는 2016년 미국의 볼티모어, 워싱턴 D.C에서 오수와 폭우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정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약 2,500만 달러 규모로(세제 혜택 적용) 첫선을 보였고, 시민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된 EIB는 애틀랜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흐름은 최근 올해 3월 버펄로스에서 역대 최대규모(약 370억 원)의 EIB 프로젝트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sup>05</sup>

<sup>03</sup> Quantified Ventures (2019) 'Case Study - Atlanta's Department of Watershed Management'

<sup>04</sup> Lewis, C. (2019) 'Atlanta Environmental Impact Bond Breaks Into Public Market', Conservation Finance, 24 Jun 2019

<sup>05</sup> City of Buffalo (2020) 'City of Buffalo to Launch the Largest Environmental Impact Bond (EIB) in the Country'

E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 재소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도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이 환경 분야에 적용된 파생형태로, 기존의 전통적인 지방정부 채권에 성과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성과연계를 적용한 방식이다. EIB는 채권 발행기관(중앙 혹은 지방정부)이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치를 민간사업 수행기관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사업의 결과물은 외부평가기관의 중립적인 평가를 거쳐 지정한 목표치를 충족했을 시 이에 비례하여 투자원금과 성과급(인센티브)을 정부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 애틀랜타 EIB 의 구조도

© Quantified Ventures



S(E)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는 성과에 따른 수익률을 지급해 민간으로부터 선행자금을 유치하고, 정부는 큰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 SIB가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과 가장 큰 다른 점은 SOC가 공공의 편익과 투자자의 편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할수록 투자자의 수익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된 임팩트 투자라는 점이다.

물론 S(E)IB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어떻게 평가(수치화 및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 좀 더 근본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모델 자체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애틀랜타 EIB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할 점은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환경' 사업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 마련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즉 도시 관 개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하드웨어) 확보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녹색 인프라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고(소프트웨어), 대규모 자원 조달을 위해 EIB 라는 금융도구를 적용한 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초점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탄력성 증대(환경)에 둔다는 것이다.

10년 뒤 결과물로 투자자들의 예상 수익률 3.55%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관점,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 더욱 참여적인 금융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전적 의미는 “An act or process of governing”이다. 즉 의사결정과 통치의 결과가 아닌 통치 되는 ‘과정’과 ‘방법’을 의미한다. 시민들이 사는 도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갈지를 고민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확립은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의미할 것이다.

도시의 물리적인 인프라의 개발, 커뮤니티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 위기에 탄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질 때 도시는 좀 더 균형 잡히고 역동적인 곳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다양한 실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금융의 역할에도 주목해보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요즘, 기존의 일상과 당연하기만 했던 질서(status quo)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②

###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 ‘솜 모빌리티트(Som Mobilitat)’와 참여형 금융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2016년 포럼에서 인공지능의 급격한 기술발전이 우리가 삶과 일 그리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하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다.<sup>06</sup>

이날의 화두 이후 지난 4년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기술발전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찬 시선도 있었지만, 자동화(automation)에 따른 기존 일자리의 소멸, 거대기업의 기술기반 플랫폼 독점에 따른 초양극화,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정의에서 벗어나 제도권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 파편화 등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무겁게 제기되었다. 실제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변화가 인류에게 이보다 더 거대한 약속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며 다가올 미래의 양면성을 지적했다.<sup>07</sup>

급격한 변화로 만들어질 새로운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등)의 사용으로 창출된 부가 소수에게만 예측되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08



자동화로 대체되는 인력

© ulalaLAB

06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07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Penguin

전 세계 65개국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를 예로 들어 보자.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 이면에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프리랜서 운전자들, 파이의 급격한 이동으로 붕괴한 택시산업과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기반 플랫폼은 점점 더 고도화되는 반면 그 이익이 사용자, 노동자와 공유되는 것이 아닌 우버 내에 독점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여타의 기술기반 디지털 플랫폼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의 경우 사용자가 저렴하게 여행지에서 숙박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돕지만, 여행지의 주거 건물과 상점이 시민들이 아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단기 숙박 시설로 사용돼 임대료가 치솟아 시민들이 내몰리는 투어리피케이션(tourification)이 발생하고<sup>08</sup>, 에어비앤비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항하는 플랫폼협동조합 페어비앤비 Fairbnb<sup>09</sup>

에어비앤비에 대항하여 발생한 수익을 여행지의 커뮤니티를 위해 환원하는 플랫폼협동조합 페어비앤비가 2016년에 시작해 유럽 5개 도시에서 현재 서비스 중이다. 기업화된 업체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입해 에어비앤비 숙소로 임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명의 호스트는 하나의 숙소만 렌트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수익의 절반을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플랫폼협동조합이다.

구글, 페이스북 서비스 또한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 설정의 문제 그리고 공공재인 소비자의 데이터로 창출된 이익의 공유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시대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자동화 등)의 기술로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한편,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 플랫폼의 독점과 그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 그리고 창출된 부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19세기 처음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은 산업혁명 시대 자본과 생산수단의 독점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경제적 빈곤을 자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에 사회경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며 전환할 수 있을까?

2016년 스페인의 카탈루냐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협동조합 솜 모빌리타트(Som Energia, 2010년 스페인 Girona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만든 친환경 에너지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2019년 기준 5만4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친환경 프로젝트에 1,300만 유로 규모의 누적투자를 이뤄냈다)<sup>10</sup>의 조합원 70여 명이 모여 솜 모빌리타트라는 모빌리티 서비

08 조미담 (2019) '급성장한 에어비앤비 '그늘'도 깊어진다' 주간경향, 14 Oct 2019

09 <https://fairbnb.coop/>

10 Hirschmann, S. (2017) 'A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Spanish Energy Oligopoly', Energy Democracy 14 Nov 2017



© Som Mbili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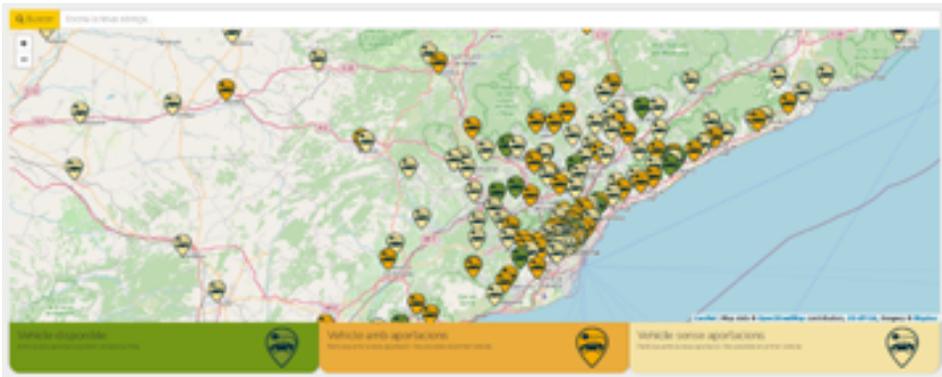
스를 결성한다.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 차량을 공유하는 카 셰어링 서비스로 카탈루냐지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약 1,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협동조합 구조로, 발생한 수익은 플랫폼의 운영과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이며 상향식 의견수렴과 재원 마련을 통해 확장한다.<sup>11</sup>

차량의 공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조합원이 되어 지역 노드(node)개념의 로컬그룹을 조직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카탈루냐지역을 중심으로 총 253개의 지역에서 펀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솜 모빌리타트는 크게 3가지의 금융조달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로 조합원들이 향후 사용할 차량 요금을 사용시간에 대해 선 결제한다. 또한, 스폰서십을 통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후원 형태로 출자 시 사용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며, 3년 뒤에 별도 이자 없이 출자원금을 돌려받는다). 끝으로 솜 모빌리타트는 총회를 통해서 수요가 있는 로컬그룹에 장기간 저금리로 4만 유로까지 대출해 신규서비스의 개시를 돕는다.<sup>12</sup>

차량의 공유에 대한 수요가 있는

### 녹색 아이콘은 크라우드펀딩이 완료되어 차량 이용이 가능한 지역, 주황색/노란색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준비가 현재 진행 중인 지역

© Som Mbilitat



솜 모빌리타트 서비스의 첫 시작은 커뮤니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고테오(Goteo, 스페인기반 커뮤니티 크라우드펀딩 P2P 플랫폼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디자인되었다. 2011년부터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약 12만3천여 명에게 약 6백만 유로를 펀딩했다. 펀딩 과정에 공공과 재단이 매칭펀딩하며 임팩트 창출을 돕기도 한다(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은 75% 이상

<sup>11</sup> <https://www.sommobilitat.coop/>

<sup>12</sup> Medicities High Level Trainings on Sustainable Mobility (2019) 'A Nonprofit Cooperative Working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이다)를 통한 모금<sup>13</sup>과 바르셀로나시의 매칭으로 마련된 시드머니로 가능했다.<sup>14</sup> 솜 모빌리타트는 이를 발판삼아 디지털 웹과 모바일 App 플랫폼을 개발했고 조합원을 늘릴 수 있었다. 이후 공유 차량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독점되는 것이 아닌, 플랫폼 서비스지역의 확대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합원에 환원되는 구조이다. 수익의 85%는 로컬그룹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환원되고 나머지 15%가 협동조합에 돌아간다.<sup>15</sup>

시민들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 카탈루냐의 지방정부는 전기 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고 솜 에너지(Som Energia) 협동조합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위해 아크 협동조합(Arc Cooperativa, 스페인의 사회적경제 특화 공제, 2천여 협동조합 19만여 명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sup>16</sup>, 통신에서는 솜 커넥트(Som Connexio)와 같은 타 분야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운영의 효율화와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대안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해 솜 모빌리타트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퍼져있는 차량공유 포인트를 스페인 내 타 지역과 벨기에 등의 타 유럽국가에도 모빌리티 플랫폼협동조합 모델을 이식하고 있다.

#### 차량 예약 App 사용개요

© Som Mobilitat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협동조합 솜 모빌리타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선 솜 모빌리타트의 비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솜 모빌리타트의 창립 목적은 공유차 사용으로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전기 차량, 전기차 충전기 및 스쿠터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있었다. 이는 서비스의 시작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서비스로 디자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성과 편의성의 향상에만 집중해, 공유경제 본래의 주목적 중 하나인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그에 따른 탄소배출의 감소 등의 본질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솜 모빌리타트의 창립 목적과 서비스 디자인이 주는 의미는 크다.

13 Goteo (2017) 'Compartim Vehicles Elèctrics'

14 Passeri, F. eds. (2018) 'Triggering Participation: A Collection of Civic Crowdfunding and Match-funding Experiences in the EU'

15 <https://www.sommobilitat.coop/>

16 Arc Coop (2020) 'Arc Cooperativa i Som Mobilitat Firmem un Conveni D'intercooperaci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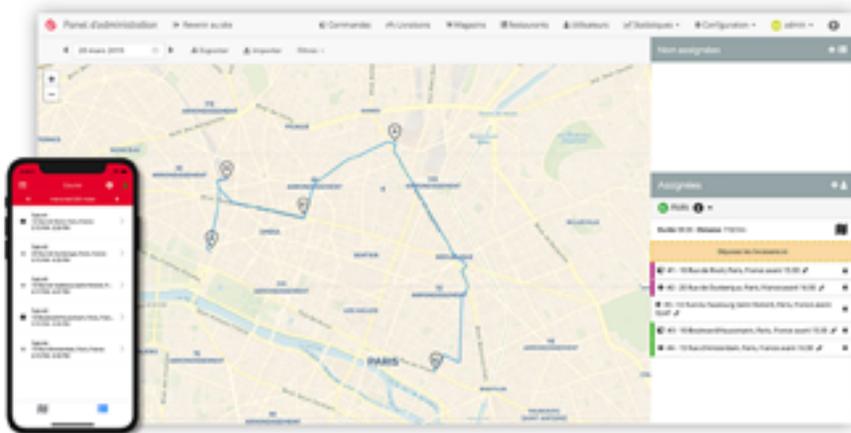
다음으로 서비스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참여형 금융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이다. 신규 차량 서비스지역의 확장은 사업 수익성 계산에 기반한 것이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수요에 기반했다.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차량을 구매하는 한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해 직접 로컬그룹을 구성해 인식개선 활동을 벌이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이를 현실화했다. 이에 지방정부는 주차공간과 같은 하드웨어 지원과 매칭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이러한 공공의 참여는 이 프로젝트의 공공성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해 추가적인 민간의 참여와 협업을 끌어냈다.

숨 모빌리티의 서비스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타 협동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업에 있다. 충전소, 보험 등 분야의 타 협동조합과 핵심 서비스가 연동되어 사회적가치 창출의 시너지를 냈다는 점이다. 숨 모빌리티는 협동과 연대의 개념을 조합 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했다.

끝으로 숨 모빌리티의 확장성에 주목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예약과 결제 등을 돕는 범용성을 가진 디지털 app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다른 지역, 국가에서 무료로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했다. 숨 모빌리티는 유럽 모빌리티 플랫폼협동조합을 추진하고자 레스콥 모빌리티(RESCOOP Mobility)라는 유럽 모빌리티 협동조합 협회를 조직해 기술의 이식을 돕고 있다.<sup>17</sup> 소수에게 독점되는 플랫폼이 아닌 모두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제2의, 제3의 숨 모빌리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벨기에와 스페인 4개 지역의 차량공유 협동조합에 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유사한 사례로 친환경(전기) 자전거 등을 활용한 배달 및 운송 서비스를 하는 유럽지역의 디지털 플랫폼협동조합 연합체인 쿵사이클(Coopcycle) 에서도 app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들의 조직화를 돕고 있다.<sup>18</sup>

#### CoopCycle에서 개방한 디지털 플랫폼 배달 APP 화면

© CoopyCycle



17 Reichel, L. (2017) 'Introduction to REScoop Mobility'

18 <https://coopcycle.org/en/>

플랫폼협동조합은 최대 주주가 의사결정과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닌 플랫폼을 조합원이 1인 1표를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플랫폼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은 플랫폼에 재투자되고 사용자에게 환원되는 구조이다. 슝 모빌리타트에 주목할 점은 환경에 중점을 둔 모빌리티 서비스를 위해 타 협동조합 및 공공과 협업하고, 플랫폼의 기술을 개방해 대안적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기반한 참여형 재원 조달과 이를 돕는 매칭 금융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했다는 점도 자본시장의 대규모 벤처 투자에 의존하는 기존 테크 기업들과 차별화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슝 모빌리타트가 얼마나 더욱더 뛰어난 기술과 편의성으로 기존 기술기반 플랫폼과 경쟁하여 시장 점유율에서 승리할지에 있다기보다는, 대안적 방식의 기술 활용과 확장,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풀뿌리 금융의 역할과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목적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그 방향성에 있다.

슝 모빌리타트가 보여준 가능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가올 기술의 변화에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우리 삶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를 우선 고민하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술이 뒷받침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상력에 있다. 슝 모빌리타트는 우리에게 무엇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해야 하며, 기술의 혁신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혜택의 온기를 퍼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가치의 혁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알 반 잘라(Al Bawala) 재단의 창립자 아미라 야히오이(Amira Yahyaoui)의 말처럼<sup>19</sup> 다가올(혹은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혁명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의 역할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상상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③

## 기후위기와 제로 에너지 주택 프로젝트 '에너지스프롱(Energiesprong)'

“계속해서 어른들은 우리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희망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극도의 공포에 빠지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매일매일 느끼는 이 두려움을 느끼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재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2019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 중)<sup>20</sup>



시위 중인 그레타 툰베리

© Euronews

17세의 스웨덴 기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1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50주년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시급한 행동을 요구했다.

한가한 ‘희망’이 아닌 ‘집에 당장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라는 툰베리의 일갈은 같은 해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완성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5)가 각국의 견해차로 커다란 소득 없이 끝난 것과 대비되며 큰 울림을 주었다.

툰베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3주간 등교를 거부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스웨덴의 탄소배출 감소의무를 이행을 촉구하며 스웨덴 의회 앞에서 매일 벌인 시위였다. 이후 툰베리의 외침이 국제적인 공감을 얻어갔던 것은, 일견 체감되지 않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기후변화 이슈를 그 영향 아래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행동하지 않

20 World Economic Forum (2016) 'Annual Meeting'

는 현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인 공동행동이 어려운 것은 당장의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이슈가 당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데서 기인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장의 가동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은 즉시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 효과는 당장 실현되기 어렵고 혜택은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가 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상기온,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서서히 체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에게는 현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의 삶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는데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 노력의 혜택이 개별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당장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시차를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기에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윤리성, 당위성에 대한 강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효과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체감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설계와 의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핵전쟁 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로 2020년 지구멸망(자정) 100초 전으로 앞당겨진 종말의 날 시계 (The Doomsday Clock)

© The Asahi Shimbun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당장의 내 생활에 연결되어 즉각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까?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에서 처음 시작된 에너지스프롱(Energiesprong)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건물은 유럽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35%를 차지한다. 반면 75% 이상의 건물이 에너지 비효율 건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보수 비율은 연간 0.4~1.2%에 그치고 있다.<sup>21</sup> 따라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시민이 일상을 영유하는 공간인 주거용 건물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은 다른 그 어떤 영역보다 실제 생활과 밀착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펀딩을 통해 처음 시작된 에너지스프롱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21 European Commission (2019) 'New Rules for Greener and Smarter Buildings will Increase Quality of Life for All Europeans'

기존의 낡은 주택을 전체를 개조(retrofit)해서 건물의 탄소배출을 0(net zero energy)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환기와 냉각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사전 제작한 파사드(facade, 건물의 앞면)를 주택에 부착하여 단열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태양광 지붕을 설치해 주택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도 공급하는 형태이다. 주택 전체를 개조하는 레트로핏 작업은 정교한 사전 제작 등의 방식을 통해 1~2주 사이에 끝나 편의성을 높이고 전체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췄다.

큰 비용이 한 번에 발생하는 레트로핏의 낮은 인센티브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스프롱은 생애 파이낸싱(whole-life financing model) 기법을 사용한다. 레트로핏을 통해 높아진 에너지 효율로 임차인은 절감된 에너지 사용료 분의 새로운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활용해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에서 주택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다. 즉 거주민은 더 쾌적해진 거주환경을 누리면서 기존에 내던 에너지 사용요금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조합에 지불하고, 조합은 절감된 비용만큼을 주택개조 비용으로 충당하게 된다. 여기에 조합이 관리하는 주택들의 수리 및 관리 비용 절감분도 더해진다.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에너지스프롱은 40년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보증한다.<sup>22</sup>

한편 레트로핏의 한 채 당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하는데 사전에 제작한 파사드의 부착 등이 용이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주택을 조합(housing association)이 관리하는 사회주택에서 에너지스프롱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 시작을 위해서는 초기 네덜란드 정부의 펀딩이 투입되었지만, 2019년 기준 네덜란드에서 5,000채 이상의 주택이 레트로핏을 통해 탄소배출 제로가 되었고, 매년 1,000채 이상이 에너지스프롱을 통해 변모하고 있어 현재는 전체 비용을 낮춰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규모에 도달했다.<sup>23</sup>

## 에너지스프롱 구조도

© Energiesprong UK



<sup>22</sup> European Commission (2017) 'Policy Measure Fact Sheet Netherlands Energiesprong (Energy Leap) Thematic Objectives 1 & 3'

<sup>23</sup> <https://energiesprong.org/>

이러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에너지스프롱은 ▲(환경) 탄소배출 감소, ▲(거주민)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조합) 관리 및 수리 비용 등의 절감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레트로핏을 통한 사회주택의 에너지 효율의 향상으로 저소득층의 연료 빈곤(fuel poverty) 문제도 해결하는 사회적 임팩트도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경우 사회주택의 1/3이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스프롱을 통한 연료 빈곤 문제 해결에 기대가 높다.<sup>24</sup>

에너지스프롱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자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 북미 등에서도 에너지스프롱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으로 악명이 높은 영국의 경우 노팅엄지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155채가 에너지스프롱을 통해 변모했다. 한 채당 드는 비용은 약 65,000 파운드 가량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 채당 드는 비용을 40,000 파운드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규모를 이루기까지의 겹은 EU의 펀딩과 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채운다. 정부가 5,000채의 레트로핏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하면 전체적인 비용이 대폭 감소하여 별다른 보조금 없이 모델이 지속 가능하다는 예측이다.<sup>25</sup>

현재 2019년 기준 영국 전역에서 186채가 완공되었으며, 가장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뤄진 노팅엄지역에서 레트로핏을 거친 주택의 CO2 배출이 86% 감소했다고 보고되어<sup>26</sup> 영국은 6,550여 채의 추가 주택개조를 계획 중에 있다.

에너지스프롱은 여러 국가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레트로핏을 기존 주택에 이어 아파트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에서 나아가 신축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네덜란드 2,000여 채의 에너지스프롱 주택 중 40%가 탄소배출 제로 주택으로 신축되었다.<sup>27</sup>

**영국 노팅엄의 주택주택. 주택개조를 거친 주택의 CO2 배출이 86% 감소했다**

© Balkan Green Energy News



24 O'Neill, K. (2019) 'One-third of Social Housing Tenants Cannot Afford to Heat Home' Irish Examiner, 10 Oct 2019  
 25 Cibse Journal (2018) 'Energiesprong - The Dutch System that could Rescue Britain's Social Housing'  
 26 Ashden (2019) 'The National Energy Foundation and Energiesprong UK / High-Impact Retrofits'  
 27 Edie (2018) 'In Practice: The UK's First Energiesprong Homes'



## 영국 노팅엄의 주택개조 과정

© Balkan Green Energy News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스프롱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과 효과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기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문제를 생활과 밀착된 인센티브 구조의 설계로 체감률과 직접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즉 레트로핏을 통해 탄소배출의 큰 부분을 사용하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데 있어, 거주민과 주택조합에 추가비용 없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낮추기 위해 규모의 경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nudge) 초기펀딩,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매월 총비용을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금융구조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사회주택이 이러한 혁신실험이 이뤄지는 가장 적합한 장이 되었다는 데도 큰 시사점이 있다. 이를 통해 연료 빈곤 등의 사회문제까지도 동시에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길도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을 위한 공급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공급의 절대적인 수량과 용적률 상향에만 주목할 것이 아닌, 기후변화시대 어떠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지, 새로운 주거공간의 보급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갈지도 차분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전 세계 오토매틱 시계 브랜드 중 단연 최고가의 명품으로 인정받는 파텍필립(Patek Philippe)의 브랜드 슬로건은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조차 없는 지구도 미래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일 테다. 에너지스프롱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생애 밀착형 금융구조를 통해 행동하지 않는 기성세대를 질책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튜베리를 위해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점검해보면 어떨까?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④

# 공동체주식을 통해 지켜가는 지역사회 문화 허브, '익스체인지 브리스톨(Exchange Bristol)'

“예술은 현실 세계 옆에 보다 인간적인 세상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 André Maurois)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우선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인 경제정책, 잘 갖춰진 주거와 교통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도시의 미래를 그릴 때 경제적인 성장, 정치적인 안정과 참여, 친환경 등의 매크로(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 자체도 거대한 도전이지만, 종종 우리는 이러한 여러 조각을 결합하는 문화와 예술의 가능성을 시야에서 놓치곤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영유하는 도시는 구성원 개개인의 꿈, 가능성, 욕망, 행복과 좌절이 뒤섞인 지난하고 작은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이야기들의 용광로(melting pot)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공유되는지는 도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늘어나고 탄소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의 수치로는 답길 수 없지만, 한 도시가 얼마나 '인간중심' 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미술, 공연, 음악,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원 개개인의 감정들과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공유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창의성을 발현하며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정치적 이념, 경계, 경제성 등을 넘어 인간 본연의 생각이 표현되고 교류하게 하는 매개체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바로 커뮤니티의 응집력을 높이고 위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경제, 정치, 환경적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8천9백만 달러 규모의 펀딩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 미국의 아트펀드(Artsfund)는 보고서 '예술 학습의 사회적임팩트(Social Impact of the Arts Study)'를 통해 다양한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예술이 커뮤니티의 건강과 사회적 웰빙, 교육 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sup>28</sup>

28 Artsfund (2018)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Study'



Taylor Hammes의  
'Seattle Artist's Magic'

© ArtsFund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은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소득, 지위 등을 결정짓는 여러 사회적 요인(social determinants)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일례로 문화적 자원을 누리는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아동학대 및 방관이 14%, 중대범죄 발생률이 18% 낮았다. 또한, 학업 성취도가 낮은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도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23%나 더 높았다.<sup>29</sup>

문화·예술은 근본적으로 하향식일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 경제정책들이 아래로 내려가며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빈틈을 여러 개인의 이야기들이 풀뿌리로 올라가 채우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 중 '자발성(voluntarism)',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사람 중심'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연의 가치와도 맞닿아있다.

사회적경제가 문화와 예술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상을 실현하게 하는 사회적금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영국 브리스톨의 작은 라이브 음악 공연장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 익스체인지 브리스톨

#### 라이브공연

© Exchange Bristol



29 Catterall, J. S. et al (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Stern, M, J.(2017) 'Culture and Social Wellbeing in New York City: Concepts and Methods'

브리스틀은 17세기 시작한 삼각무역(아프리카의 노예가 북미 신대륙 플랜테이션의 노동력으로 공급되고 거기서 생산된 설탕 등의 식료품이 유럽에서 소비되고 또 가공되어 다시 아프리카의 노예를 사는 데 쓰여 순환하는 무역 체인)의 유럽 중심지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영국에 정착한 아프리카 카리브해 이민자들의 영향을 받은 다문화주의 펑크, 레게, 힙합과 같은 탈권위 음악 예술운동, 대처 수상이 집권하며 추진된 신자유주의로 가속화된 빈부격차에 항거하는 정치적 활동주의, 그래피티 등의 표현예술로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활발하게 꽃피우기 시작했고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와 탈권위는 브리스틀시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 브리스틀을 기반으로 활동한 그래피티 아티스트뱅크시의 벽화

© Blocal-travel



2007년, 브리스틀의 음악 애호가 3명(Matt Otridge, Peter Wright, Paul Horlick)은 지역의 다양한 인디음악 밴드들이 자유롭게 공연하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더 크로프트(The Croft)라는 라이브공연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공연장은 점차 유명세를 얻어 에드시런, 아틱몽키즈와 같은 유명 가수들도 이곳에서 공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연장이 위치한 스트로크스 크로프트 지역의 임대료가 치솟아 기존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며 공연장은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폐쇄되게 된다. 하지만 창립자 3명의 좌절된 꿈은 2012년 올드마켓 지역의 3층짜리 낡은 빌딩을 인수하여 공연장 이름을 익스체인지 브리스틀(Exchange Bristol)로 바꾸고 운영을 시작하며 이어지게 된다.

공연장은 다시금 지역 인디밴드들의 라이브공연과 주민이 모여 교류하는 문화 허브로 운영되었고, 창립자들은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이 지역사회에 주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숍과 채식주의 식당을 공연장에 더해 2017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community interest company)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점차적인 경영악화로 창립자들은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찾은 해법은 바로 지역사회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연장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주식(community shares)의 발행이었다. 이들은 2018년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의 지분을 판매하는 공동체주식을 발행하며 #SaveExchange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은 이 캠페인을 통해 9월~10월 한 달여의 기간 만에 모금 목표치인 25만 파운드를 상회하는 30만 파운드를 약 400명의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공동체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데 성공한다.<sup>30</sup>



캠페인 중인 공동대표 Matt Otridge

© Bristollive

여기에서 공동체 '주식'은 주식의 가격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오르내리며 거래되고, 주식의 보유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더 많이 갖는 일반적인 자본시장의 주식과는 다른 형태로, 거래차익과 주식 수에 따른 지분의 확보 목적이 아닌 지역의 자산을 위한 자본의 조달과 공동의 소유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이다.

즉 공동체주식은 지역주민의 지분투자를 통해 영국의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공동체이익회사이나 협동조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주식 수와)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투자금을 회수(withdraw) 할 수 있으나 투자한 원금 이상 주식(share)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며, 판매(거래)할 수 없다. 대신 공동체주식을 발행한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해 적절한 이자를 지불받게 된다.

또한, 공동체주식은 소수의 고액투자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식 투자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다수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주식을 통해 투자한 다수의 시민 주주들은 공동체이익회사의 운영과 사업 방향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영국 내 350여 개 이상의 지역 프로젝트에서 공동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으며, 총 12만 명의 시민이 1억 파운드(약 1천5백억 원)를 투자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체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익계획, 사업계획 등의 문서를 공시(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해야 하며, 영국 정부 대표, 금융감독청(FCA), 공동체주식 유닛(Community Share Unit, 영국의 Locality, Co-operatives UK가 결성)이 참가하는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독한다.<sup>31</sup>

한편, 영국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사회투자세제혜택(SITR,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제도를 통해 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체주식을 구입할 경우 민간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약 500 파운드(약 75만 원)를 투자 시(소득세 - income tax, 자본소득세 - cap gains tax 30% 감면등)이 제도를 통해 150파운드(약 22만 원)정도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sup>32</sup>

익스체인지 브리스톨의 경우 공동체주식 1주당 1파운드의 가격을 책정했으며, 최소 투자금액은 250

30 <https://exchangebristol.com/>

31 <http://communityshares.org.uk/>

32 Ethex (2018) 'Exchange Bristol Share Offer'

파운드, 최대 투자 규모는 개인의 경우 2만5천 파운드, 기관의 경우 10만 파운드로 설정했다.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해 약 400명이 공동체주식에 투자하였고, 영국의 사회투자 도매기금 빅소사이어티 캐피탈(Big Society Capital, 후면예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다양한 소매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 사회적기업, 사회목적 임팩트 프로젝트에 투자) 또한 사회투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관에 투자하는 개인들에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익스체인지 브리스톨에 총 1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캠페인의 성공적인 자원 조달을 도왔다.<sup>33</sup>

빅소사이어티 캐피탈은 2017년부터 크라우드 매치 펀드(Crowd Match Fund)를 운용 중이다. 영국 정부의 SITR(Social Investment Tax Relief)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3곳의 파트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Ethex, Crowdfunder, ThinCats를 통해 총 1천만 파운드(약 150억 원) 규모를 투자하고 있다.<sup>34</sup>

익스체인지 브리스톨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에 따른 다양한 혜택(공연 티켓구매 우선권 및 할인, 굿즈, 무료 음반녹화 등)을 제공하고 공동체주식 발행한 2018년부터 3년 뒤인 내년(2021년)부터는 투자자들에게 3%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sup>35</sup>

공동체주식의 투자를 통해 익스체인지 브리스톨은 현재 약 300석 이상을 수용하는 라이브공연장뿐만 아니라 녹음 스튜디오, 레코드숍, 독립레이블, 카페테리아 등이 운영되는 커뮤니티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성장해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주민의 교류를 돕는 문화 허브로 정착하고 있다. 새로 워진 브리스톨 허브는 공동체주식으로 투자한 시민들이 번갈아 가며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운영 및 성장 전략을 함께 세우는 거버넌스 구조 또한 확립하였다.

### 익스체인지 브리스톨의 외부모습

© Exchange Bristol



33 ibid.

34 Rawstrone, A, (2016) 'Big Society Capital Announces £10m Crowdfunding Match Fund', ThirdSector 08 Dec 2016

35 <https://exchangebristol.com/>



##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의 레코드숍

© Exchange Bristol

한편 대형레이블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밀려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라이브 독립음악 공연장들은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재 공연 등의 활동이 어려워진 영국 내 약 500여 개 풀뿌리 라이브공연장들이 폐쇄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데, 이에 뮤직 베뉴 트러스트(MVT, Music Venue Trust)는 이들을 위한 #Saveourvenues 캠페인을 통해 풀뿌리 위기대응 펀드(Grassroots Music Venues Crisis Fund)를 조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공연장을 지원(grant 형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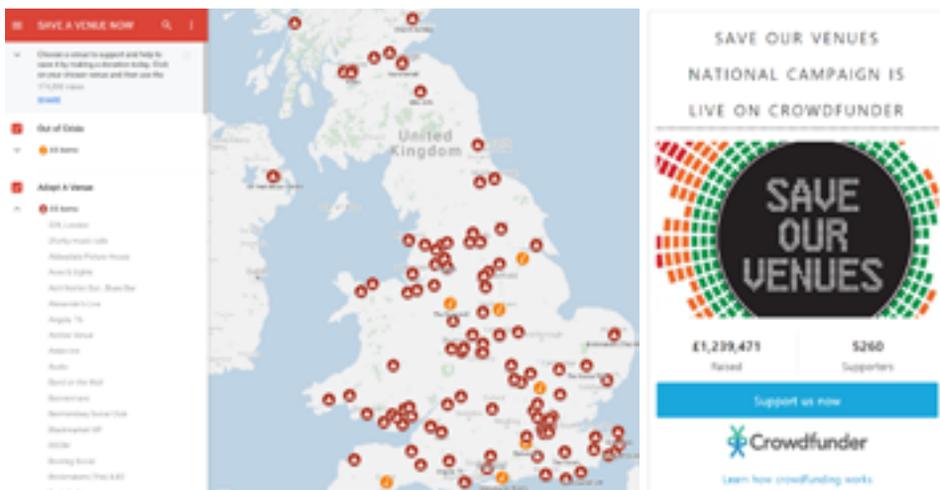
아티스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난에 있는 공연장을 리스트에서 선택하여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금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위기대응 펀드는 현재 약 5천여 명의 시민, 아티스트 등에게서 120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하였다.<sup>36</sup>

24

공동체주식 발행을 통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은 공연이 중단되자 라이브 TV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후원자들에게 #Saveourvenues 캠페인을 통해 본인들보다 다른 공연장을 먼저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브리스틀의 작은 라이브공연장 익스체인지 브리스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 경제적 위기에 처한 클럽들 (주황색 음표로 표시된 곳은 위기에서 벗어난 곳)과 모금된 금액현황판

© Saveourvenues



36 <https://saveourvenues.co.uk/>

우선 브리스톨 익스체인지가 젠트리피케이션, 경영악화 등의 위기상황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돌파했다는 점에 있다. 브리스톨 익스체인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려 새롭게 문을 연 라이브 공연장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변모시키고 다시 한번 경영 위기가 찾아오자 공동체주식 발행을 통한 시민자산화로 이를 돌파했다. 이는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의 순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더욱더 높은 지속가능성을 보인다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와도 맞닿아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한 금융의 힘이다. 공동체주식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일정 부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투자원금이 잠기는 인내자본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공동체주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방치된 커뮤니티 홀을 인수해 지역사회를 위한 아트 클래스, 공연, 다양한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맨체스터의 스트랫포드 퍼블릭 홀(Stretford public hall)의 경우도 2017년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회수는 2021년부터 매년 7%씩만 가능하다(이자는 2019년부터 매년 2%씩 지급한다).<sup>37</sup>

#### 스트랫포드 퍼블릭 홀 전경 및 아트 클래스

© Stretford Public Hall



지역주민들은 공동체주식 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의 목적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이용하고 운영할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인데 이는 투자가 단순 지분의 확보가 아닌 주인의식과 연결되기에 가능한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브리스톨 익스체인지의 사례가 가능했던 데에는 영국 정부가 사회투자 세제지원 제도를 확충해 민간의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이 제도에 근거해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인 빅소사이어티 캐피탈도 주민들이 마련한 재원이 승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한 매칭 투자에 있었다.

즉 민간의 자율성과 연대의 노력을 돕는 제도적 뒷받침과 이러한 자발적 노력을 배가시켜주는 사회적금융의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단순히 작은 라이브공연장 하나가 폐업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일견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지역사회를 결속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

<sup>37</sup> <https://www.stretfordpublichall.org.uk/communityshareoffer>

한 역할을 해나가는 문화 허브를 지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동체주식에 더해 근래 조명받고 있는 E2C(Exit to Community, 스타트업이 다른 기업에 매각되거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Exit 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직원들에게 지분을 넘기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캠페인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 소유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방식의 대안적 실험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착근하여 삶과 밀착한 ‘자산’을 누가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브리스톨 익스체인지와 공동체주식은 여러 생각할 과제를 우리에게 준다.

“예술은 공유되지 않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브라질 아티스트 로메로 브리토 (Romero Britto))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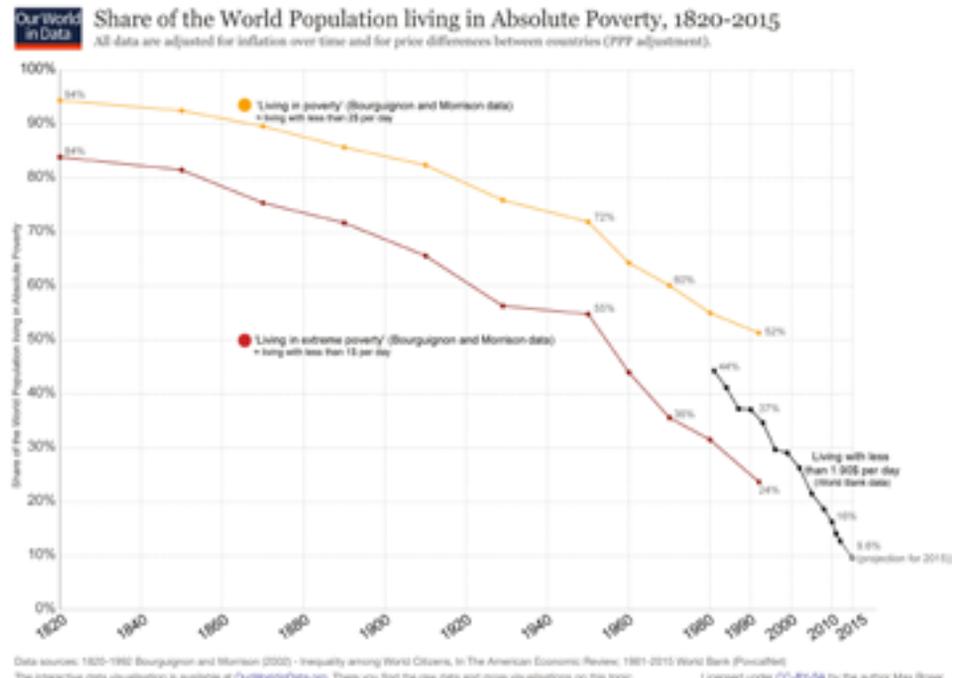
#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 (Cooperativa Fonderia Dante)과 협동금융

경제개발로 인한 성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이다.

우선 절대적인 수치로의 빈곤은 급속도로 퇴치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Bank)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세계은행이 적극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 20억 명에 다다랐으나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수치는 7억3천만 명 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해당 기간 매일 12만 명 이상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서 2015년으로 집계를 한정해보면 매일 19만 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다.<sup>38</sup>

다양한 통계 기준으로 182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그래프, 검은색 선은 세계은행의 통계(1980년부터 2015년)

© Our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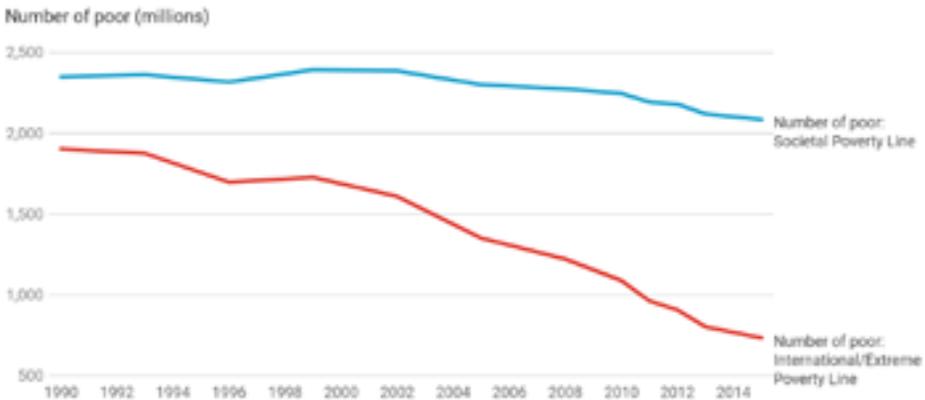


38 Roser M. and Ortiz-Ospina, E. (2019) 'Global Extreme Poverty'

이처럼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따라 빈곤율은 실제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율은 매일 1.9\$ 이하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숫자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세계은행이 정의하는 절대적 빈곤선)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웰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가령 매일 1.9\$의 두 배인 3.8\$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사회 내의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생활 여건을 누리고 있다면 자신을 빈곤하다고 여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사회적 빈곤을 함께 정의(매일 최소 생계를 위한 1\$ + 사회 내 소비 중위값의 50%) 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적 빈곤율은 절대적인 빈곤율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다.

파란색 선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 빨간색 선은 감소하고 있는 절대적인 빈곤 수치를 보여준다. © WorldBank

### The number of people identified as societally poor has declined only slightly - compared with those in extreme poverty



Source: Jolliffe and Prydz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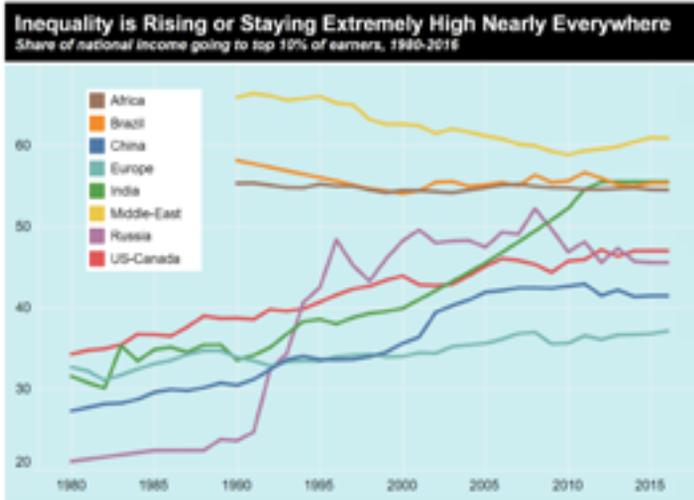
이런 결과는 자본주의를 통한 급격한 성장이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구했으나 경제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부가 편중되어 배분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사회 내에서 상대적(사회적) 빈곤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9년 크레디트스위스의 Global Wealth Report는 일부 국가에서 극심한 빈곤 및 기아가 호전되었으나 부의 편중이 지난 수십 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가중되었다고 보고하며, 현재 1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는 1%의 자산가가 전 세계의 부의 44%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1만 달러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5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자산의 약 2% 정도만 소유 있다고 발표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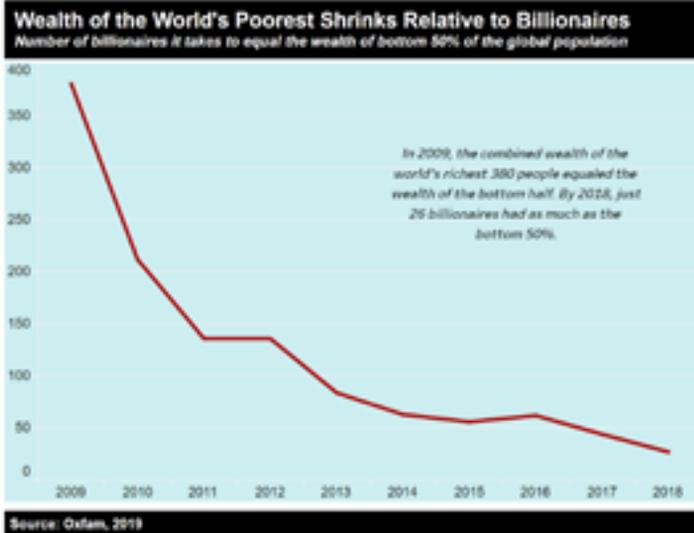
39 Credit Suisse (2019) 'Global Wealth Report 2019'

1980년대부터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국가별 상위소득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비율)이 대다수 국가에서 관찰된다.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노란색 선, 주황색 선, 갈색 선)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상위소득자 10%가 전체 국가 부의 60% 내외를 독식)을 보인다.

© Our World in Data



Source: World Inequality Lab,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Source: Oxfam, 2019

Oxfam 또한 자산가 대비 저소득층의 부에 대한 지분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전 세계 380명이 하위 50% 인구에 해당하는 부를 갖고 있었다면, 2018년에는 단지 26명이 전 세계 하위 50%와 같은 부를 갖고 있다.<sup>40</sup>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는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일반 노동자의 대량실업을 촉발하고, 사회복지 안전망에 벗어난 취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한 계층은 자산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양적 완화와 저금리로 풀린 돈이 실물경제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에 몰리게 되어 되려 부가 증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0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연방/중앙정부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는 2천3백만 명에 이른다.<sup>41</sup>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주물공장 단테(Fonderia Dante)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자.

단테는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160명을 고용하는 탄탄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시장환경의 변화와 경영문제로 사업은 적자를 지속하며 악화되었고 16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점차 줄게 되어 62명까지 축소되게 된다. 이에 회사는 2016년 7월 공장의 폐쇄를 전격 결정하게 된다.

폐업으로 인해 62명의 노동자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바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사를 인수해 본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회사를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상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수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본인들의 실업급여(NASPI, unemployment benefit) 90만 유로를 선지급 받아 1차 자금을 마련한다. 이 프로젝트를 돕기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투융자와 보증 등을 통해 금융을 추가 공급하는데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연합체인 레가코프(Legacoop)의 쿠피폰드(Coopfond)는 노동자협동조합에 27.5만 유로를 이탈리아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금융기업인 CFI(Cooperazione Finanza Impresa)에서 50만 유로를, 이탈리아의 윤리적인행인 방카에티카(Banca Etica)와 지역은행에서도 150만 유로를 투·융자하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sup>42</sup>

© Cooperativa Fonderia Dante



41 Iacurci, G. (2020) 'Unemployment Claims Are Down. It's Not All For Good Reasons', CNBC 22 Oct 2020

42 Coopfond (2017) 'Cooperativa Fonderia Dante, Decolla Il Sesto Workers Buyout In Veneto'

**Coopfond:** 1886년 설립된 이탈리아 최대규모 협동조합 연맹인 Legacoop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개발기금으로 Coopfond는 Legacoop 소속 개별 협동조합들이 수입의 3%씩 출자해 조성된다. 이탈리아 내 14개의 지역 기금을 운용 중이고, 기술개발, 고용, 신규협동조합 설립지원, 협동조합 확장,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전환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

**CFI:** 이탈리아 정부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985년 제정된 마르코라(Marcora)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의 해고된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인수할 때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출자한 자본금에 매칭펀딩을 제공한다.

**Banca Etica:** 1999년 이탈리아에 설립된 윤리적인행. 다양한 사회목적 및 친환경 사업 및 프로젝트에 투·용자를 진행하며, 은행의 자금 경로와 대출, 투자처에 대해 공시하여 경영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8년 기준 순이익은 약 338만 유로며 신용등급만이 아닌 가치에 기반한 대출 심사로 다양한 임팩트 프로젝트 등에 금융을 공급하지만, 일반 이탈리아 시중은행에 비해 절반 이하의 부실채권율을 보인다.

Banca Etica(윤리적인행), CFI(정부기금), Coopfond(협동조합 연합체 기금), 실업/퇴직 수당 (노동자들의 자조기금) 등 이렇듯 다양한 금융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노동자들은 폐쇄 결정이 내려졌던 1년 뒤인 2017년 공장용지, 장비 등을 포함해 회사를 인수하여 단테 노동자협동조합(CFD, Cooperativa Fonderia Dante)을 설립한다.

조합원은 공장을 인수한 뒤 방카에티카 등으로부터 받은 용자를 재원으로 구식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사업발전 전략을 함께 재수립하여 보일러를 하도급하고 차량의 부품인 브렘보 디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를 이뤄낸다.

이러한 노력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첫해부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시작해 2020년 현재 시간당 1만7천kg의 주물을 생산하고 8만 개의 보일러, 1백만 개의 디스크를 연간 생산하는 연 매출 1,500만 유로 회사로 성장했다.<sup>43</sup>

방카에티카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회사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요구해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미래전략과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왔다. 단테는 2017년~2020년 2백만 유로의 추가 투자유치를 통해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R&D 연구에 투자하는 한편 공장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44</sup>

단테는 폐업의 직전에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뒤 매출이 35% 상승하고 현재 20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다.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까?

43 <https://www.cfdcasting.it/>

44 Fontana, C. (2020) 'Imprese Recuperate, la Lezione Della Fonderia Dante (Anche Alle Banche)', Valori 21 May 2020



사업체가 경영이 악화되어 문을 닫을 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회사는 폐쇄되거나 다른 회사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진 회사가 퇴출되고 새로운 회사가 진입하는 순환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만약 사회적금융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이를 인수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정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종과 환경이라면 노동자협동조합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

32

기존의 정제된 산업에서 혁신을 통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해고된 실직자가 새롭게 일자리를 찾고, 회사가 문을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단테 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기존의 산업을 지켜내 다시 매출을 회복하는 경제적인 측면의 성공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이 함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오는 고용의 안정성, 근로자 개인 소득의 상승, 소수의 대주주가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이 공동으로 회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1명이 1표를 행사하는 민주성 등의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노동자협동조합의 회사인수를 돕는 사회적금융은 투자를 통해 재무제표에만 기반하지 않고 회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환경적, 지역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자협동조합은 위기의 상황에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남는다. 국제협동조합 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따르면 산업 노동자협동조합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기간(2007-2013) 일반기업의 생존율 48.3%(향설 3년 이후 기업)를 훌쩍 뛰어넘는 87.16%를 보였다.<sup>45</sup>

노동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해 회사가 원하는 수익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방향 적인 일반고용의 형태에서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이 노동자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좀 더 참여적인 형태의 양방향 고용과 소유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Employee Stock

45 Voinea, A. (2015) 'The Path to Worker Buyouts: Does the UK Need Its Own 'Marcora Law'?', COOPnews 7 Sep 2015

Ownership Plans)의 형태로 노동자의 회사지분 소유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주신탁제도는 회사의 전체/일부 지분을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신탁에 매각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퇴직 수당의 형태로 받게 되는데 회사를 떠날 시 주식을 받게 되며 회사는 이를 시장가에 되사주는 방식이다. 혹은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신탁에서 외부자금을 차입해 자사의 주식을 사고, 차입금은 회사가 계속 갚아 나가며 정부는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도 있다. 실제로 ESOP가 미국에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NCEO(National Center for Employee Ownership)'는 현재 미국의 약 6,500여 개 회사가 ESOP를 통해 노동자가 일부 혹은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미국 전역에 약 1,400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 중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1,580조에 이른다고 집계하고 있다.<sup>46</sup>

끝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회사인수와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지원(이탈리아의 마르코라법과 미국의 세제 혜택 등)을 바탕으로 인수 및 회사의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협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테의 부활에는 신용이 부족하고 재무제표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인수 회사에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가치를 고려해 투·융자한 윤리적인행, 협동조합연맹의 연대에 기반한 금융지원,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자조적으로 모은 노동자들의 노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의 매칭기금 등 여러 금융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지원한 사회적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

경기의 확장(성장)과 수축(위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구조하에서 위기의 시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밖에 있는 사회적약자 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는 상대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 격차가 심해질 때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결들(social fabric)이 손상되며 경제성장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살려내 위기에 강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만들어낸 단테와 이를 도운 협동금융 사례 하나가 당장의 전 세계의 모든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경제의 상상력을 통해 대안적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을 통해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의 성공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쌓여나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해 한 발 더 나아 갈 수 있지 않을까?

46 <https://www.nceo.org/>

## 사회적금융의 상상 ⑥

### 프레스턴시(Preston City)의 회생과 선순환 금융

“저출산이 지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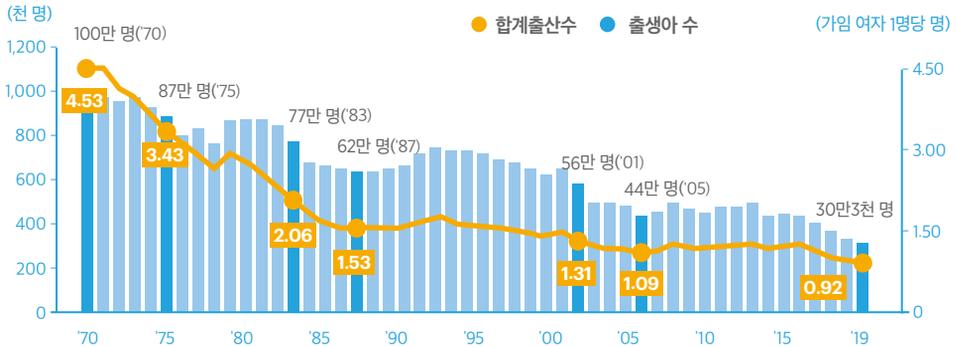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수-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는데 58년, 프랑스는 39년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급격한 압축성장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나 단 8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sup>47</sup>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가임기 여성 천명 중 1명이 아이를 낳는 비율, 현재 한국은 이 수치가 1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출생아 수는 6만9105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치이다.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9)

(자료=통계청)



국회 입법조사처는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1.21명의(201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의 인구가 2200년 322만 명으로 급격히 수축할 것으로 내다봤다.<sup>48</sup>

이는 평균수명을 80세로 계산할 시 약 2.4세대 만에 인구가 급격히 소멸한다는 것이며, 인구 322만 명은 서울시의 자치구인 도봉구 수준의 인구로 이는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로 기능하기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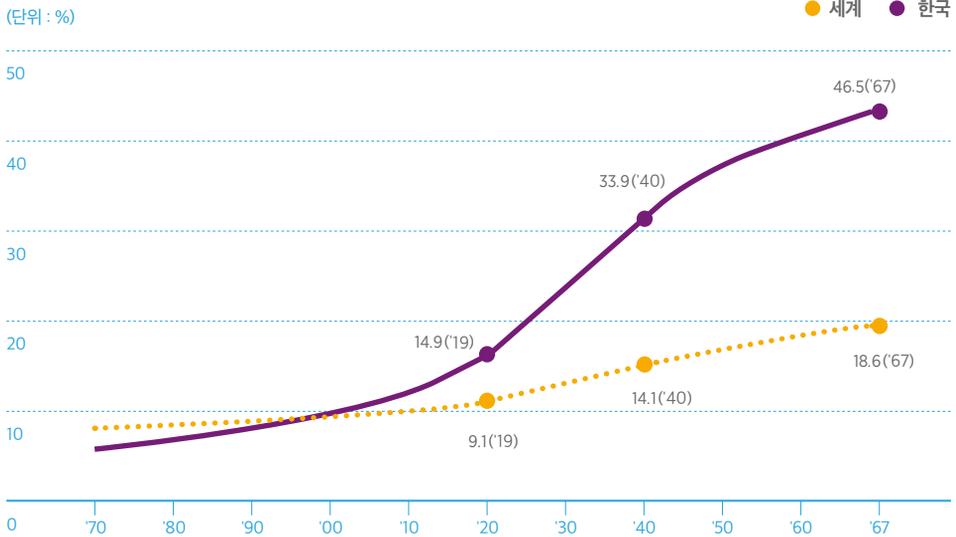
47 국회입법조사처 (2017)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48 ibid.

워진다는 이야기다. 해당 보고서는 2014년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의 합계출산율(0.92명)로 새롭게 계산하면 극적인 인구정책 및 사회 여건의 전환 혹은 통일, 이민 유치와 같은 인구의 외부 유입 변수가 없는 한 한국의 인구 소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통계청)



문제는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 '숫자'의 감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보험 재정이 고갈하여 국가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고통스러운 수축이라는 점에 있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료=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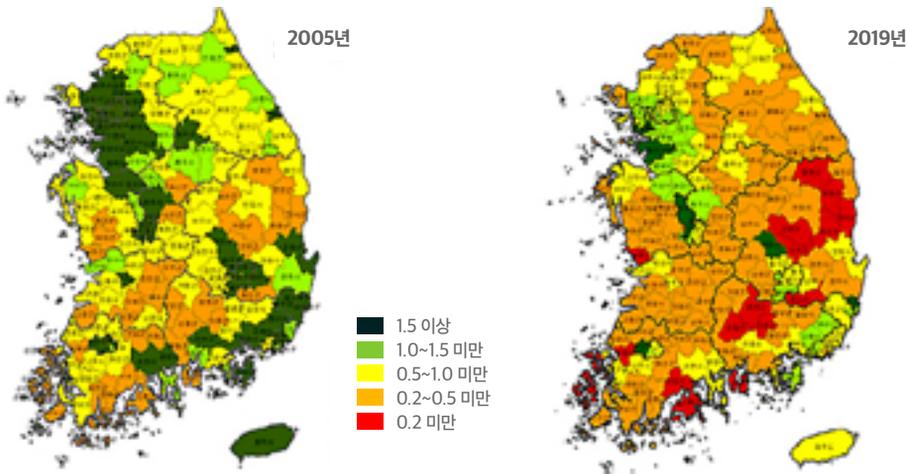


한국의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의 시민에게는 아직은 체감이 되지 않는 먼 훗날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시선을 넓혀 지방으로 확대하면 이미 인구 소멸은 우리 목전에 와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인구감소는 전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지만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군·구는 전체 228개 중에 97여 곳에 다다른다(전체의 42.5%).<sup>49</sup>

**지난 2005년과 올해 전국 시군구별로 분석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수치가 낮을수록 소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약 14년 사이에 위험도가 급격히 커졌음을 볼 수 있다.**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지도에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곳들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체적인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인구감소는 또한 세수입 저하를 초래해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악화시켜 도시의 제반 인프라를 더욱더 낙후시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게 된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지역 상품권 발행, 도시재생 사업 전개 등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도시의 존폐를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 소멸 현상은 단순한 개별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전 국가적 인구감소 트렌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사회문화 여건, 복지제도 등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인구가 소멸하고 도시 전체가 낙후되어 가는 지방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도시를 회생시킬 수 있을까? 지방의 개별 도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전 국가적인 인구감소 경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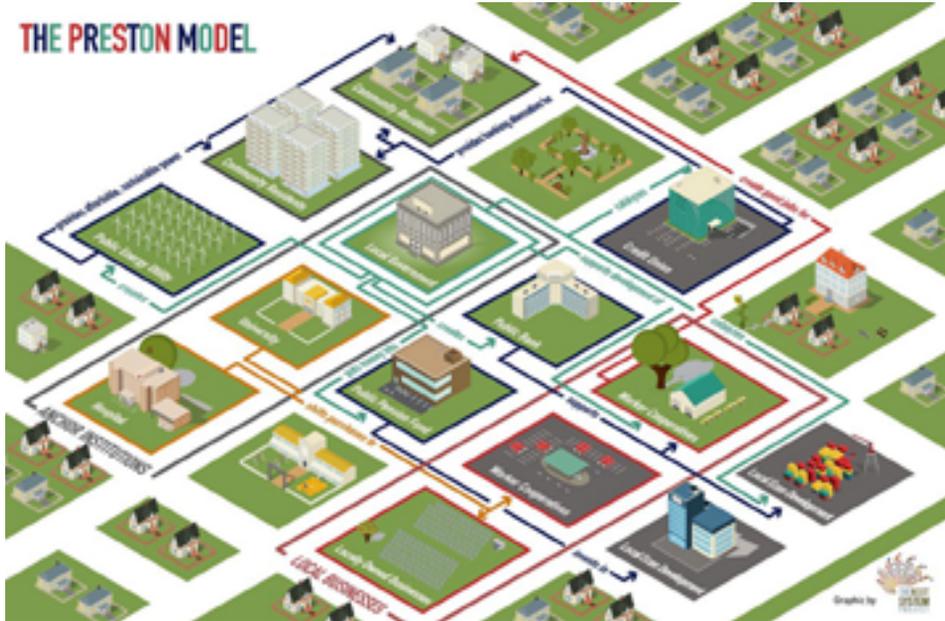
49 허수정 (2020) '위기의 대한민국...“인구소멸 위험 지역 100곳 넘었다”', 한국경제 7 Oct 2020

은 막기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추세가 도시 - 지방간에 극단적으로 불균형하게 발현되는 것은 늦춰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많은 시간과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영국 랭커셔주 프레스턴시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이 문제에 하나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자.

### 어떤 방식으로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지를 시각화한 프레스턴 모델 개요

© The Next System Project



영국 프레스턴시는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섬유산업 등으로 부흥했던 영국 북서부의 주요 거점 도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주요 산업이 동아시아 신흥 개발국의 낮은 단가에 밀려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게 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뤄내지 못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프레스턴시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갔고 젊은 세대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증가하던 인구는 2000년대부터 정체되기 시작한다. 아동 빈곤율의 경우 22%까지 치솟고 일부 지역은 2012년 기준 평균수명이 65세밖에 되지 않는 등 도시는 급격히 쇠락한다. 자연스레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 또한 하락하여 프레스턴시는 영국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갖게 된다.<sup>50</sup>

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약 7억 파운드의 대규모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대대적인 도시 정비와 대규모 소규모 건물 등의 개발 전략을 세운다. 하지만 2007년 닉슨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투자 도시 정비 계획이 무산되게 되며, 시의 재정 또한 영국 정부의 긴축으로 인해 큰 폭으로 삭감된다.

50 Schaefer, L. (2018) 'The Preston Model of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K'

프레스턴시는 이에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클리블랜드시의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경제의 쇠퇴 문제를 도시 내 병원, 대학, 관공서 등 앵커 기관(커뮤니티에 뿌리내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돛’ 기관)의 공공조달과 같은 지출을 기존의 다국적기업 혹은 런던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아닌 지역기반 기업, 지역의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게 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닌,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지역사회 부 만들기(Community Wealth Building)’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우선 프레스턴시는 비영리 씽크&두(Think&Do)탱크인 지역경제전략센터(CLES, Center for Local Economic Strategy)를 통해 지역 내 대학, 병원 등의 공공조달, 지출 현황을 파악했다. CLES는 조사를 통해 지역 내 6개의 앵커 기관(프레스턴 시 정부, 랭커셔 주 정부, 주택협회, 대학, 직업학교)의 전체 지출 중, 지역 내 소비가 현저히 낮은 점을 발견하고(프레스턴시의 경우 5%, 랭커셔주로 확대했을 때 39%만이 지역 내에서 소비) 시의 앵커 기관에서 소비하는 20파운드 중 단 1파운드만이 프레스턴에 머물고 나머지는 외부로 유출된다고 분석한다.<sup>51</sup>

이에 시의회 의장 매튜 브라운(Matthew Brown)을 중심으로 프레스턴시는 시의 주요 앵커 기관의 지출 및 공공조달이 지역 기업과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 일자리에 영국 내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living wage)을 지급해 공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역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소득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무산된 해외자본 투자를 대신해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설립에 지방정부 연금의 1억 파운드 규모 직접 투자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한편 시중은행이 낮은 신용으로 갖고 있는 지역기반 중·소규모 기업에 융자하지 않고 지점을 폐쇄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금융의 공급을 위한 1백만 파운드 규모의 영국 북서부 지역 커뮤니티은행의 설립 또한 추진하게 된다. 아직은 발족 전이지만 프레스턴시는 전체 주민의 10%가 계좌를 커뮤니티은행으로 옮길 시 약 40억 파운드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 부 만들기’ 전략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의회, 중앙 랭커셔 대학(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Open Society) 재단,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Co-operative UK)와 공동으로 1백만 파운드 규모의 현금 혹은 현물 지원 시드 펀드를 조성하여 10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을 지원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협동조합, 시의회, 지역거점대학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프레스턴 협동조합 개발 네트워크(PCDN, Community Benefit Society)’를 구성하여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기업전환, 지역 자산의 소유, 공공조달 등의 참여를 돕기 위해 컨설팅, 역량 강화, 투자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52</sup>

프레스턴시는 기존의 조달정책을 최저가로 입찰한(보통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는 대기업, 다국적기업)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기존의 기준에서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느냐의 기준으로 관점

51 CLES & Preston City Council (2019) ‘How We Built Community Wealth in Preston: Achievements and Lessons’ Chakraborty, A. (2018) ‘In 2011 Preston Hit Rock Bottom. Then It Took Back Control’, The Guardian 31 Jan 2018

52 Co-operative Councils Innovation Network (2018) ‘Strategy - Co-operative Development Network Preston City Council’

을 전환했고, 이는 앵커 기관의 지출이 지역에 기반한 기업, 시민 가족기업, 노동자협동조합에 돌아 가게 할 수 있는 근거기반이 된다.

물론 떨어진 지역 경제의 활력과 침체 때문에 앵커 기관의 조달계약을 받아 이행할 수 있는 경제주체가 없는 상황도 많다. 하지만 프레스턴시는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례로 랭커셔주의 약 160만 파운드의 급식 배급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지역기업이 없자 정부는 계약을 9 개의 작은 계약으로 분할한 뒤 이를 지역 소규모 농가에 배분하여 각각의 계약처에서 요거트, 샌드위치 소, 달걀, 치즈 등을 개별적으로 납품받아 학교에 급식을 배분하는 전략을 세운다. 혹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지역기반 기업이 전혀 없을 때는 입찰기업이 어떻게 지역의 고용을 늘리고 지역 기반 영세기업과 협업할 건지를 심사한다.<sup>53</sup>

**침체기의 프레스턴시 상권(좌)과 서서히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시내(우)**

© The Guardian



시는 앵커 기관의 공공조달을 수행할 핵심 주체로 노동자협동조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의 지분이 아닌 조합원 근로자 1인이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민주성과 근로자 개개인의 직접적인 소득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전략적으로 10여 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을 건설, 사회복지 부문 등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추진하여 핵심 자산과 서비스의 시민 소유 권한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프레스턴시는 그간 민영화되거나 민간에 매각했던 지역 시설물을 재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개보수하고 직접 사회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영화관, 식당, 볼링장 등과 같은 일부 편의시설 또한 시가 관리하여 그 이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프레스턴 앵커 기관의 지역 내 소비, 조달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삭감된 지방예산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3천 8백만 파운드 규모에서 2017년 4억 8천 8백만 파운드 규모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프레스턴시에서만 7만 파운드, 랭커셔주에서는 2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신규 일자리를 1천 6백 개를 만들어낸다.<sup>54</sup>

53 Sheffield, H. (2017) 'The Preston Model: UK Takes Lessons in Recovery from Rust-belt Cleveland', The Guardian 11 Apr 2017  
 54 CLES & Preston City Council (2019) 'How we built community wealth in Preston: Achievements and Lessons'

이러한 ‘지역사회 부 만들기’ 전략은 프레스턴을 2012년 영국 내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경제적으로 낙후한 하위 20% 도시에서 2016년에는 영국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2018년에는 영국에서 가장 향상된 도시로 선정되는 결실을 보게 해준다.

**[클리블랜드 지역개발 모델]**

- 클리블랜드는 미국이 세계 제조업을 이끌던 시기 핵심 공업 도시로 큰 호황을 맞았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상당수 지역 공장들이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며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로 쇠락하기 시작하고 1950년 이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짐에 따라 인구가 58% 감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 함. 이에 클리블랜드는 시 정부, 협동조합, 비영리 싱크탱크인 협력 민주주의(The Democracy Collaborative)가 주축이 되어 함께 협력하는 지역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이는 클리블랜드 모델로 불리며 큰 성공을 거둠.
- 클리블랜드 모델은 1956년 설립되어 74,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몬드라곤 기업(노동자협동조합 연맹)에서 영감을 받음.
- 클리블랜드 모델에서는 지역의 수요가 지역 내 생산자에 의해 충족. 시 정부와 지역 대학, 대형병원, 자선재단 등은 외부가 아닌 지역 노동자협동조합 등을 통한 조달로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앵커기관이 중요한 역할 수행.
- 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해 이러한 전체 순환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설립된 에버그린 노동자 세탁협동조합은 그 대표적 예로, 클리블랜드 내에서 가장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받아 높은 실업, 빈곤, 범죄율을 보인 낙후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조직, 앵커 기관의 세탁 업무를 수탁해 친환경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모를 키움.
- 이후 태양광 에너지 공급, 친환경 농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 이러한 조달체제로 인해 에버그린 노동자협동조합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며 낙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임금을 지급.
- 에버그린 협동조합은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의 민주적인 소유와 이들 기업을 통한 지역개발 모델을 확산하고자 협동조합의 기업 인수전환을 돕는 펀드를 자체적으로 조성.

우리는 프레스턴지역의 사례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프레스턴은 지역 경제의 쇠퇴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 시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다른 무엇보다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동하는지 그 순환에 주목하며 실마리를 풀어내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본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 정부를 포함한 주요 앵커 기관의 소비와 공공조달을 최대한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소득이 증가한 지역 기업, 노동자의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는 선순환 금융구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금융의 다양한 전략적인 활용 (연기금의 지역 직접투자, 커뮤니티은행 설립 추진 등) 또한 커다란

역할을 했다.

프레스턴 모델을 이행하는 기반은 지역 기업 나아가 이상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이다. 시는 자본의 지역 내 순환, 시민 소득의 증대, 지역 자산의 민주적인 소유를 위한 핵심 주체로 노동자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시의 다양한 주체가(대학, 지역협동조합, 의회, 비영리단체 등) 함께 모여 이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협치로써 만들어낸다.

이러한 프레스턴시의 전략은 소도시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스턴, 뉴욕, 영국의 맨체스터 등과 같은 큰 도시에도 주목을 받으며 벤치마킹되어 다양한 국가의 도시로 확산 중이다.

아직은 '지역사회 부 만들기' 프로젝트가 큰 폭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직접적인 데이터나 연구는 쌓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몹시나 당연하게도 쇠락한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본이 이윤의 추출(extraction)이 아닌 그 본래의 목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쓰이고 순환될 수 있도록 그 구조의 설계와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활용은 프레스턴시의 대안적 지역개발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했다.

프레스턴시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계기가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2007년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의 대규모 해외투자유치 계획이 무산되면서부터이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어쩌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구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고 상상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에필로그

지면을 통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6개 중점 분야의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 도시재생: 도시재생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애틀랜타와 EIB(환경성과 연계 채권)
2. 기술: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슝 모빌리타트와 참여형 금융
3. 기후: 기후위기와 제로 에너지 주택 프로젝트 에너지스프롱
4. 문화·예술: 공동체주식을 통해 지켜가는 지역사회 문화 허브 익스체인지 브리스톨
5. 양극화: 노동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단테 주물공장과 협동금융
6. 고령화·인구: 프레스턴시의 회생과 선순환 금융

비록 매회 해당 주제별로 각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위의 모든 사례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된 사례만으로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3화 에너지스프롱을 예로 들면 기후변화 대응 편에 소개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동시에 도시재생, 주거문제, 양극화 해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2

실제로 우리가 편이상 여러 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사회적경제를 바라보지만 각 영역은 현실에서 구분하기 어렵게 밀접하게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야를 넓히면 사회적경제 또한 기존 경제의 외곽에서 홀로 별개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인구 등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된 사례들은 해외에서 가장 뛰어난 사례로 우리가 배우고 똑같이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에서 소개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환경, 역사, 정치제도, 경제적 상황, 공공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이 다르기에 어떤 특정 사례와 모델이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적용되고 성공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개별 사례들은,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들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 또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같이 우리 사회와 전체 경제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안적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능성을 꾸준히 증명하고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원론적으로는 모든 금융은 애초에 사회적 가치창출을 돕는 사회적 금융이어야 하고, 기업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하는 사회적 기업이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 참고자료

---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fileName=Report%20285\(The%20Implication%20of%20Population%20Policy%20Using%20Simulation%20of%20Korea%EF%BC%87s%20Balancing%20Population%20Scenarios\).pdf&doc\\_id=1LziUOY3Aty](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fileName=Report%20285(The%20Implication%20of%20Population%20Policy%20Using%20Simulation%20of%20Korea%EF%BC%87s%20Balancing%20Population%20Scenarios).pdf&doc_id=1LziUOY3Aty)
- 박강아 (2012) 'SERI 경영노트 - 부활하는 도시의 비결, 도시재생': <https://www.seri.org/db/dbReptV.html?menu=db12&submenu=&pgno=1&pubkey=db20120614001>
- 조미담 (2019) '급성장한 에어비앤비 '그늘'도 깊어진다' *주간경향*, 14 Oct 2019: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910071415371&code=117>
- 하수정 (2020) '위기의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험 지역 100곳 넘었다"', *한국경제* 7 Oct 20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074392i>
- Arc Coop (2020) 'Arc Cooperativa i Som Mobilitat Firmem un Conveni D'intercooperació': <https://arc.coop/2020/11/05/arc-cooperativa-i-som-mobilitat-firmem-un-conveni-dintercooperacio/>
- Artsfund (2018)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Study': [https://www.artsfund.org/wp-content/uploads/2018/10/ArtsFund\\_Social-Impact-Study\\_Brochure\\_digital.pdf](https://www.artsfund.org/wp-content/uploads/2018/10/ArtsFund_Social-Impact-Study_Brochure_digital.pdf)
- Ashden (2019) 'The National Energy Foundation and Energiesprong UK / High-impact retrofits': <https://ashden.org/winners/the-national-energy-foundation-and-energiesprong-uk/>
- Catterall, J, S. et al (2012) 'The Arts and Achievement in At-Risk Youth: Findings from Four Longitudinal Studies':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Arts-At-Risk-Youth.pdf>
- Chakraborty, A. (2018) 'In 2011 Preston Hit Rock Bottom. Then It Took Back Control', *The Guardian* 31 Jan 2018: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8/jan/31/preston-hit-rock-bottom-took-back-control>
- Cibse Journal (2018) 'Energiesprong - The Dutch System that could Rescue Britain's Social Housing': <https://www.cibsejournal.com/case-studies/a-forward-leap-how-dutch-housing-process-energiesprong-guarantees-performance/>
- City of Atlanta (2019) 'City of Atlanta Department of Watershed Management Announces
- City of Buffalo (2020) 'City of Buffalo to Launch the Largest Environmental Impact Bond (EIB) in the Country': <https://www.buffalony.gov/CivicAlerts.aspx?AID=506>
- CLES & Preston City Council (2019) 'How we built community wealth in Preston: Achievements and Lessons': <https://cles.org.uk/publications/how-we-built-community-wealth-in-preston-achievements-and-lessons/>
- Co-operative Councils Innovation Network (2018) 'Strategy - Co-operative Development Network Preston City Council': <https://www.councils.coop/case-studies/preston-co-operative-development-network/>
- Coopfond (2017) 'Cooperativa Fonderia Dante, Decolla Il Sesto Workers Buyout In Veneto': <https://www.coopfond.it/cooperativa-fonderia-dante-decolla-il-sesto-workers-buyout-in-venet>
- Credit Suisse (2019) 'Global Wealth Report 2019':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
- Edie (2018) 'In Practice: The UK's First Energiesprong Homes': <https://www.edie.net/library/In-Practice—The-UK-s-first-Energiesprong-homes/6808>
- Ethex (2018) 'Exchange Bristol Share Offer': <https://www.ethex.org.uk/ExchangeBristol>
- European Commission (2019) 'New Rules for Greener and Smarter Buildings will Increase Quality of Life for All Europeans': [https://ec.europa.eu/info/news/new-rules-greener-and-smarter-buildings-will-increase-quality-life-all-europeans-2019-apr-15\\_en](https://ec.europa.eu/info/news/new-rules-greener-and-smarter-buildings-will-increase-quality-life-all-europeans-2019-apr-15_en)

- European Commission (2017) 'Policy Measure Fact Sheet Netherlands Energiesprong (Energy Leap) Thematic Objectives 1 & 3': <https://ec.europa.eu/docsroom/documents/30290/attachments/3/translations/en/renditions/pdf>
- First Publicly-Issued Environmental Impact Bond': <https://www.atlantawatershed.org/first-publicly-issued-environmental-impact-bond/>
- Fontana, C. (2020) 'Imprese Recuperate, la Lezione Della Fonderia Dante (Anche Alle Banche)', *Valori* 21 May 2020: <https://valori.it/fonderia-dante-impres-recuperate/>
- Goteo (2017) 'Compartim Vehicles Eléctrics': <https://en.goteo.org/project/compartim-vehicles-electrics>
- Hirschmann, S. (2017) 'A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Spanish Energy Oligopoly', *Energy Democracy* 14 Nov 2017: <https://energy-democracy.net/som-energia-the-first-energy-cooperative-which-provides-an-alternative-to-the-traditional-energy-suppliers/>
- Iacurci, G. (2020) 'Unemployment Claims Are Down. It's Not All For Good Reasons', CNBC 22 Oct 2020: <https://www.cnn.com/2020/10/22/unemployment-claims-are-down-its-not-all-for-good-reasons.html>
- Lewis, C. (2019) 'Atlanta Environmental Impact Bond Breaks Into Public Market', Conservation Finance, 24 Jun 2019: <https://www.conservationfinancenetwork.org/2019/06/24/atlanta-environmental-impact-bond-breaks-into-public-market>
- Medcities High Level Trainings on Sustainable Mobility (2019) 'A Nonprofit Cooperative Working Towards Sustainable Mobility': [http://www.medcities.org/documents/10180/1230301/Som+Mobilitat+\\_+High+Level+Trainings+\\_+GO+SUMP.pdf/d40b6df4-b793-479a-ad17-712181fbc85c](http://www.medcities.org/documents/10180/1230301/Som+Mobilitat+_+High+Level+Trainings+_+GO+SUMP.pdf/d40b6df4-b793-479a-ad17-712181fbc85c)
- O'Neill, K. (2019) 'One-third of Social Housing Tenants Cannot Afford to Heat Home' *Irish Examiner*, 10 Oct 2019: <https://www.irishexaminer.com/news/arid-30956291.html>
- Oxfam (2019) 'Annual Report - Fighting Inequality to Beat Poverty': [https://oi-files-d8-prod.s3.eu-west-2.amazonaws.com/s3fs-public/2019-12/191219\\_Oxfam\\_Annual\\_Report\\_2018-19.pdf](https://oi-files-d8-prod.s3.eu-west-2.amazonaws.com/s3fs-public/2019-12/191219_Oxfam_Annual_Report_2018-19.pdf)
- Passeri, F. eds. (2018) 'Triggering Participation: A Collection of Civic Crowdfunding and Match-funding Experiences in the EU': [http://eurocrowd.org/wp-content/blogs.dir/sites/85/2018/07/ECN\\_CF4ESIF\\_Report\\_Triggering-Participation\\_2018.pdf](http://eurocrowd.org/wp-content/blogs.dir/sites/85/2018/07/ECN_CF4ESIF_Report_Triggering-Participation_2018.pdf)
- Quantified Ventures (2019) 'Case Study - Atlanta's Department of Watershed Management': <https://www.quantifiedventures.com/atlanta-eib>
- Rawstrone, A. (2016) 'Big Society Capital Announces £10m Crowdfunding Match Fund', *ThirdSector* 08 Dec 2016: <https://www.thirdsector.co.uk/big-society-capital-announces-10m-crowdfunding-match-fund/finance/article/1418090>
- Reichel, L. (2017) 'Introduction to REScoop Mobility': <http://conference.rescoop.eu/wp-content/uploads/2017/08/Girona-Presentation-E-Mobility-Lucas-Reichel.pdf>
- Roser M. and Ortiz-Ospina, E. (2019) 'Global Extreme Poverty': <https://ourworldindata.org/extreme-poverty>
- Schaefer, L. (2018) 'The Preston Model of Community Wealth Building in the UK': <https://www.centreforpublicimpact.org/case-study/the-preston-model-of-community-wealth-building-in-the-uk/>
- Schwab, K. (2017)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ondon: Penguin
- Schwab, K.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1/the-fourth-industrial-revolution-what-it-means-and-how-to-respond/>
- Sheffield, H. (2017) 'The Preston model: UK Takes Lessons in Recovery from Rust-belt Cleveland', *The Guardian* 11 Apr 2017: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7/apr/11/preston-cleveland-model-lessons-recovery-rust-belt>
- Stern, M. J. (2017) 'Culture and Social Wellbeing in New York City: Concepts and Methods': [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8&context=siap\\_culture\\_nyc](https://repository.upenn.edu/cgi/viewcontent.cgi?article=1008&context=siap_culture_nyc)
- Voinea, A. (2015) 'The Path to Worker Buyouts: Does the UK Need Its Own 'Marcora Law'?', *COOPnews* 7 Sep 2015:

- <https://www.thenews.coop/97306/sector/retail/path-worker-buyouts-uk-need-marcora-law/>
- World Economic Forum (2016) 'Annual Meeting':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1/our-house-is-on-fire-16-year-old-greta-thunberg-speaks-truth-to-power/>
  - World Economic Forum (2016) 'Press Conference With the Co-chairs of the Annual Meeting': <http://webcasts.weforum.org/widget/1/davos2016?p=1&pi=1&hl=english&id=73365>
  - <https://www.bancaetica.it/>
  - <https://www.cfdcasting.it/>
  - <https://www.cfi.it/index.php>
  - <http://www.communityshares.org.uk/>
  - <https://www.coopcycle.org/en/>
  - <https://www.coopfond.it/>
  - <https://www.energiesprong.org/>
  - <https://www.exchangebristol.com/>
  - <http://www.evgo.com/>
  - <https://www.fairbnb.coop/>
  - <https://www.nceo.org/>
  - <https://www.saveourvenues.co.uk/>
  - <https://www.sommobilitat.coop/>
  - <https://www.stretfordpublichall.org.uk/communityshareoffer>

SVS 인사이트 05

## 사회적금융의 상상

**연구자** 정종덕  
**발행일** 2020년 12월 21일  
**발행처**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주 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YWCA 6층  
**전 화** 02-2088-3288  
**메 일** info@svsfund.org  
**홈페이지** www.svsfund.org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